

군산대, 일반재정지원대학 미선정 “납득하기 어렵다”

재학생 · 지역 청년들 위한 탄탄한 취창업 디딤돌 역할 해와

교육부의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발표에서, 군산대학교가 일반재정지원대학에 미선정되면서 커다란 충격을 던지고 있다.

지역사회 및 동문 재학생 등도 이구동성으로 건실한 대학체계를 갖추고 미래지향적인 대학운영을 통해 꾸준한 성장세에 있는 국립대인 군산대학교가 기본역량진단 결과에서 미선정 대학이 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군산대학교는 정량평가에서는 45점 만점에 44.273을 획득해 상위그룹에 해당하는 만점에 가까운 98%의 득점율을 보였지만, 정성 평가에서 51점 만점에 78%에 해당하는 39.855를 획득했다.

지표별 취득 점수 현황을 보면 정성 평가에 해당하는 교과과정 운영 및 개선, 학생학업역량 지원, 진로·심리상담 지원, 취업·창업 지원 부문에서 생각지도 못한 점수를 받아 더욱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분야는 그동안 군산대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대학역량을 강화하고 인프라를 확충해온 부분이기 때문이다.

군산대학교는 2017년 고용노동부 주관 대학창업조일자리센터 사업에 선정돼 지금까지 재학생 및 지역 청년층 취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운영해왔고, 2019년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초기창업패키지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유망창업 아이템과 고급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육성 및 지원하며 ‘창업지역 거점대학’으로서의 우수한 역량을 발휘해 왔다.

또한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대 창업지원센터인 ‘청년뜰’을 군산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며 재학생 및 지역 청

년들을 위한 탄탄한 취창업 디딤돌 역할을 해왔다.

2017년에는 국립대 최초로 융합기술 창업학과를 신설하였다. 재학생들이 각종 학생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되었고, 국내는 물론 해외 취창업 경진대회, 교육부장관인증 학생창업유망 창업기업 등 다수 대회 및 인증평가에서 수상 및 선정되었다. 또한 다수가 국내외 상표, 특허,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을 창출하는 좋은 성과도 꾸준히 내고 있다.

2019년에는 교육부의 사회맞춤형 산도대학 육성사업(LINC+) 우수대학에 선정되는 쾌거도 올렸다. 군산대학교는 이 사업을 통해 산학협력 친화형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산학연계 교육을 확대해왔으며, 4차산업혁명에 적절한 학생학업역량을 강화하고, 현장 적응력이 높은 산업수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며 학생취업률도 대폭 향상하는 성과를 냈다.

또한 2018년에는 고용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군산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군산강소연구개발특구 기술핵심대학’으로서, 친환경전차차 전장 부품 및 부품소재 분야 기술개발 및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민간의 준비를 하고 있다. 2018년 ‘대형공역터빈 해상 실증센터 조성사업’에서도 중심 역할을 맡아 미래에너지신산업 기술 성장 및 전문 인력 양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군산대학교는 2주기 대학기본역량 진단평가 이후 학생학업역량 등 정성 지표 분야에 대한 지원을 꾸준히 확대해 왔다. 특히 진로심리상담 부분의 경우 상담 인력을 대폭 확충(18년 13명 → 20년 34명)하고, AI 플랫폼 기반의 온라인 상담 서비스인 ‘넷카톡’

상담시스템 구축(2020학년도 총 사용자 4,267명) 등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에서 학생들의 진로 심리상담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다.

전공교과과정에서는 새로운 사회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유망 분야 공유 및 융합 전공을 신설하고, 이를 관장하는 미래창의학부도 신설하는 등 교육과정 운영 및 개선을 위해서도 각고의 노력을 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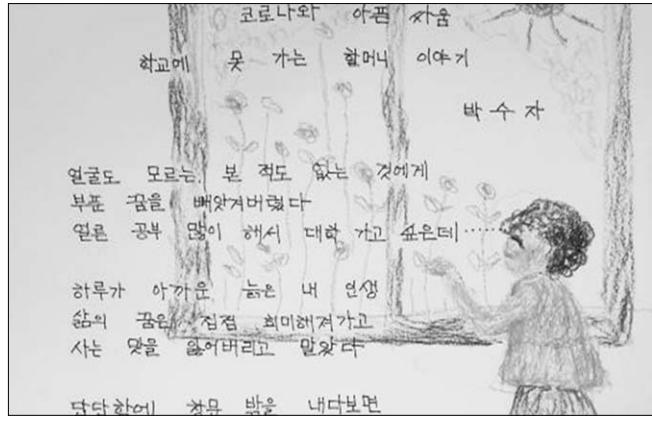
이외에도 우수고등인력을 선발해 지원하는 BK21사업(두뇌한국21), 대학 우수연구인력 양성 사업인 교육부의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 기초연구실 지원사업 등 군산대학교가 국가의 지원받아 수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다수이다.

이런 모든 성과에도 불구하고 정량평가에서는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으나, 객관적 지표가 없는 정성평가에서 평균 이하의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군산대학교 광역선 총장은 “우리 대학이 정량평가에서는 평균 이상의 결과를 냈고, 또한 그동안 3주기 평가에 대비해 교육과정은 물론 학생취창업 지원, 진로 및 심리 상담 등과 관련된 인프라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이에 상응하는 성과도 많이 도출했는데, 이와 관련된 분야에서 뜻밖의 결과를 내게 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대학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이의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최종 결과는 대학별 이의신청에 대한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월 말 확정될 예정이다.

/군산=남경봉기자



군산시는 늘푸른학교 박수자 학습자가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최한 2021년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에서 최우수상(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친구들과 선생님께도 감사드린다”

군산시 늘푸른학교 박수자씨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최우수상 수상

군산시는 늘푸른학교 박수자 학습자가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최한 2021년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에서 최우수상(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문해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신을 위해 유네스코가 정한 ‘세계 문화의 날’을 기념하고,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을 개최하며 진행했다.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말자에 담은 희망의 여정’으로 전국에 민병이 넘는 학습자가 참여했으며 전라북도내 평생교육진흥원에 1차 심사를 거쳐 선정된 후 대국민 투표를 통해 최고상인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얻었다.

이번에 최우수상을 수상한 작품은 ‘코로나와 아픈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초등학력을 이수하고 중학학력인정 과정을 이어가는 과정에 코로나로 인해 수업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는 어려움과 답답함을 토로한 작품이다. 아

까운 시간은 계속 흐르고 전화로 하는 학습이 배움에 대한 욕구를 채워주지 못하는 아쉬움에 대한 간곡한 마음이 절실하게 표현됐다.

박수자 학습자는 1948년생으로 군산시늘푸른학교에서 수업을 받은지 올해로 6년 5개월이 됐다. 복장부터가 학습에 임하는 마음가짐이며 학교에 올 때는 항상 깔끔하고 단정한 복장으로 멋지게 등교를 하고 수업이든 행사든 항상 열정을 가지고 먼저 나서 모범이 되어 주는 학습자다.

수상 소감으로는 “정말 너무 기쁘다. 공부하고 싶었던 내 절실한 진심이 전해진 것 같다. 코로나 때문에 속상했던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된 것 같아서 위안이 된다. 모든 친구들의 답답함도 함께 대변해 준 것 같아서 더욱 기쁘다. 내 작품이 후배에 올랐을 때 같은 반 친구들이 함께 투표해주고 응원해 주었는데 친구들과 선생님께도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군산=고병민기자

익산시, 경관 개선사업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익산시는 경관 개선사업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19일 시에 따르면 익산시는 부서 간 협업 첫 사례로 원광대학교 대학로 구간을 선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상지인 원대사거리에서 북일초교 구간은 차량 통행량과 유동 인구가 많아 불필요한 시설물 제거와 깨끗한 환경 조성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시는 해당 구간을 대상으로 노상 적치물과 불법 광고물 정비, 불필요한 표지판 철거작업을 진행했다.

또한 방치돼 있는 생활 쓰레기를 수

거하고 가로수 하단에 맥문동을 식재해 경관을 개선하고 있다.

시는 올 하반기 안에 공공시설물 색채디자인, 공중전화부스 이전과 교체 설치, 교통안전표지판 개선 등을 실시해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며 이번 사업의 효과를 점검하고, 새로운 대상지를 선정해 내년 두 번째 시범구역을 조성하는 등 대상지를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전반적인 도시이미지 개선을 위해서는 관련 부서들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2022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공모

군산시는 19일부터 오는 9월 3일까지 2022년도 민간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을 신청받는다

2022년도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민간단체는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등을 작성해 소관 보조사업 담당부서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지원대상 및 자격은 군산시에 소재하고 ▲법령 또는 시 조례상 지원 규정이 있는 단체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로서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

다만, ▲동일 단체의 유사·중복 사업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등은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산=한경봉기자

익산 코로나 확진자

4명 추가 ... 누적 595명

익산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4명이 추가 발생했다.

19일 시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20대 1명과 50대 1명, 60대 2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추가 확진된 전북 3175번(익산 592번)은 60대다. 이 확진자는 무증상인 상태에서 진단 검사를 받아 양성 판정을 받았다.

또 다른 60대인 전북 3176번(익산 593번)은 전북 3175번(익산 592번)의 접촉자다.

이 확진자는 무증상인 상태에서 진단 검사를 받아 양성 판정을 받았다.

전북 3190번(익산 594번)은 20대로 감염 경로는 파악되지 않았다.

이 확진자는 지난 17일 미각 등의 소실 증상이 발현해 진단 검사 후 양성 판정을 받았다.

50대인 전북 3201번(익산 595번)은 수인 확진자의 접촉자 통보를 받아 검체 검사를 통해 감염 사실이 밝혀졌다.

한편 보건당국은 감염경·접촉자 역학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익산시, 식량산업 경쟁력 강화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

익산시가 식량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했다.

19일 시에 따르면 익산시는 지난 18일 지난해 수립한 식량산업 5개년 종합계획(2020~2024) 실적과 성과 등을 평가하고 개선과제 제시 등을 위한 발전협의회를 개최했다.

지역농협과 RFC 대표, 들녘경영체

대표 등이 참석해 농가소득 증대와 농산물 유통 소비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미국 및 발작물 분야의 농가조직화, 적정·고품질 생산, 브랜드 소비 항목 등을 평가했다.

또 시설투자 수요에 따른 연차별 사업추진 사항을 점검하며 식량산업 생

산·유통 농정방향, 관내 활성화 방안 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시는 식량산업 5개년 종합계획을 통해 지역여건과 농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식량산업의 생산과목표를 설정하고 식량산업의 생산·유통·가공 관련 시설투자 수요를 분석해 왔다.

/김재훈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